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Tel 02.765.3011~3



일본의 새소식

2020 WINTER

Vol.

567



표지

천년의 인연(千年の絆)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INTERPARK상

Photo : KIM SANGSU

통권 567호 계간지

(2019년 봄호부터 계간지 발행)

발행일 2020년 2월

발행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디자인 상상디자인

CONTENTS

특집

03 일한정상회담

문화원 관련

04 2020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을 마치고

05 제17회 일본가요대회를 마치고

J-POP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 교류의 장

06 제15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를 마치고

어느 날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

일한 관계

07 자매도시 소개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

10 日本語で語るニッポン 가즈미 다테이시 트리오 인터뷰

올해로 한국 데뷔 10주년,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와 협업도 꿈꿔

일본 문화

14 프리츠커상을 받은 일본의 건축 건축가

일본 건축계의 아버지, 일본 건축의 기초를 확립한 단게 겐조

18 영화 속의 한 장면을 찾아서

영화 러브레터의 추억 오타루

일본 사정

22 트렌드 앤 트렌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 일본의 연말연시

26 일본의 계절을 걷다

일본 동북지역의 하얀 풍경 속을 걷다

30 조금 특별한 공간 미치노에키

오키나와 드라이브, 오키나와 미치노에키 온나노에키

34 일본이 알고 싶다

니가타현 조에쓰시

공보문화원 광장

37 일본문화원 리포터

규슈 관광열차, 이사부로 · 신페이 & 하야토노가제

39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 작품

43 〈일본의 새소식〉 설문조사 협력 의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44 미야기현, 겨울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라

일한정상회담

12월 24일 오후 2시 무렵(현지 시각)부터 약 45분간, 일한중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중국 청두를 방문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정상회담을 가진 바,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모두 발언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일한, 일한미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은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장 총리로 재임 중이며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총리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 레이와가 의미하는 대로 아름다운 조화 아래 일본의 발전과 번영이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 일한 관계

(1) 아베 총리는, 일한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구(旧)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있다. 이는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며, 한국에는 국가로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계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본건의 조기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며 조기에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양 정상은 구(旧)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했다.



Photo: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2) 아베 총리는, 이처럼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국민 간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관점에서도 양국 정부가 다양한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인식에 전면적으로 동감한다고 발언했으며, 양 정상은 다양한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3) 덧붙여 아베 총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투명성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측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대응을 포함해, 억제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3. 북한 정세

아베 총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각종 사정거리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CVID 실현을 위해 계속 북미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한국 측의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납치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에 이해를 표명하며, 한국은 북한에 대해 납치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양 정상은 북한 정세와 관련한 일한, 일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을 마치고

1월 10일(금)부터 21일(화)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린 ‘2020 신년일본문화소개전: 일본의 설풍경전 &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 작품전’이 성황리에 10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올해는 일본의 설 풍습과 장식물 등을 소개하는 ‘일본의 설풍경전’과 함께 일본 다카라즈카시 수공예협회의 협력으로 수공예작품전을 개최했다. 먼저 설풍경전에서는 각종 장식물 등의 전시와 함께 전통적인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12간지가 그려진 예쁜 카드에 소원을 적어 가는 ‘에마 걸기’와 신년 운세를 점쳐보는 ‘오미쿠지’ 그리고 새해 첫 붓글씨를 쓰는 ‘가키조메’ 등이 대표적인 체험 코너로 관람객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수공예작품전에서는 설을 테마로 한 패치워크 퀼트, 소프카빙, 천공예, 가죽공예, 목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며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행사 초반부와 후반부 이틀간 진행된 수공예 워크숍은 조기에 예약접수가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새 오브제, 소프 카빙(국화), 설 장식용 리스, 풍선 램프’ 등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 참가자는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1월 11일(토)에는 초등학교 일본문화체험교실과 떡메치기 행사가 열려 체험교실 참가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일본의 전통 절구와 떡메로 떡메치기를 실시하고 떡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또 1월 16일(목) 뉴센추리홀에서 열린 일본전통음악콘서트에는 홀수 공연원을 넘어서 관객으로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고토와 사쿠하치,

사미센이 자아내는 일본전통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 전에는 고토 연주가 도미모토 세이에이(富元清英) 씨와 함께 하는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 연주 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1월 17일(금)과 18일(토)에는 ‘맛있는 일본차(茶)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일본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차 대사 오가타 준코(尾形純子) 씨의 강의로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같은 찻잎으로 만든 녹차, 호지차, 홍차 등 다양한 차를 직접 내려보고 시음하며 차의 세계를 알아봤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가자가 일본차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행사 막바지인 20일(월)에는 일본의 기예 다이도게 쇼가 열렸다. 낮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이 찾아와 뮤직퍼포먼스, 풍선아트, 저글링 등 다양한 다이도게 퍼포먼스를 즐겼다.

기간 중 행사에 참가했던 관람객은 “일본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가까이하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아기자기하게 구성되어 있어 부담 없이 관람하고 즐길 수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으며, 수공예 워크숍 및 일본차 워크숍, 전통악기 고토 워크숍에 참여했던 참가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공예 워크숍에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 “실생활에 필요한 맛있는 차 우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공연 감상 전에 일본 전통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감상 등을 전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내년 신년행사에서도 관람객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J-POP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일본 교류의 장

일본가요대회는 한국에서 J-POP의 인기가 높아지자 2001년부터 한국인(만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작년부터 겨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는 153팀(171명)이 응모하여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16팀이, 2월 1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진행된 본선 대회에 출전하여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실력과 무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세계 무대를 목표로 활동 중인 보컬 & 댄스그룹 주얼(Jewel)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인 벨라(BELLA)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아티스트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양국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올해 최우수상을 받은 김지원 씨는 ANA 앙콕 항공권을 받았다.

제17회 일본가요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지원 양은 "사실 이번 대회는 순전히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했던 터라 수상했을 때는 기쁘다는 감정보다 놀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예선 통과 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했는데, 심지어 최우수상이라니 제 참가번호가 불린 그 순간은 믿기지 않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저에게 최우수상이라는 영광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미숙한 제 노래를 들어주신 관객 여러분,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일본대사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다음 기회에 꼭 방문해서 무대를 즐겨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행복하세요."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본선 축하 공연을 펼친 주얼(Jewel)은 관객 여러분의 따뜻한 호응에 감사하며 "꼭 한번 오고 싶었던 한국에서 공연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출연자 여러분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걸 듣고 있었는데, 한국 분이 일본 노래를 일본어로 즐겁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요, 멋진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더욱 좋아하게 되어 꼭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라며 인사를 전해왔다.

한편, 축하 공연 아티스트로서 무대에 오른 '벨라(BELLA)'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꼭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며 일본가요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어느 날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

노자키 모모코(野崎桃子)

지난 12월 14일(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제15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국어와 일본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국의 언어로 발표하고 교류하는 대회로 올해는 한국어 발표자인 노자키 모모코 씨가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노자키 모모코 씨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운명적으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TV 앞이었죠. 그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고 놔줄 않는 사람, 그분은 바로 가수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입니다.

그를 만나고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대학교에서는 전공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고향인 광주 옆에 있는 나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유노윤호를 처음 봤을 당시, 15살이었던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는 유노윤호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를 롤 모델로 삼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유노윤호 또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그를 해산 위기를 넘기고 군 복무도 성실하게 마쳤습니다. 가수로서도 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줬고요.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런 유노윤호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에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취직이 되겠어?” “시간이 지

나면 열정이 식는 걸 그냥 취미로 해” 학생 때는 이런 소리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열정은 식기보다는 오히려 활활 타올랐죠. ‘한국어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한 결과, 한국어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유노윤호의 꿈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꿈은? 바로 그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누가 보면 바보 같다고 할지도 모르는 이 꿈을 이루려고 진지하게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그에게서 배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윤호 오빠~! 듣고 있나요? 열정적인 오빠한테 많은 걸 배운 덕분에 저는 장밋빛 인생을 걷고 있어요. 오빠가 세운 학교에 면접 보러 가면 그때 꼭 합격시켜 주세요. 항상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

야마나시현의 개요

야마나시현(山梨県)은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시즈오카현(静岡県), 나가노현(長野県), 사이타마현(埼玉県)에 둘러싸인 내륙 현이다. 도심에서 현 중심부까지는 전차나 자동차로 9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도쿄에서 당일치기로 여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대도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삼림이 현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는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현의 남쪽에는 후지산(西部), 서쪽에는 미나미알프스, 북쪽에는 야쓰가타케(八ヶ岳)가 있다. 후지산은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만 두 번째로 높은 기타다케(北岳), 세 번째로 높은 아이노다케(間ノ岳)도 야마나시현에 있다. 이 때문에 등산이나 트레킹을 목적으로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고 있다.

또 야마나시현에는 산에서 나는 깨끗한 물이 풍부하게 용

출하고 있으며, 생수 생산량은 일본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의 혜택을 받아 오래 전부터 과수 재배도 활발하다. 포도, 복숭아, 자두 생산량은 일본 제일을 자랑한다.

야마나시현의 자매도시 교류

야마나시현과 충청북도는 산으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은 환경, 특산물, 바다와 면하지 않은 점 등 많은 공통점으로 1992년 자매도시 결연을 했다. 이후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교류를 거듭해 왔다.

2019년 11월에는 스포츠 교류로 야마나시현에서 16명의 고등학생이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현지 학생과 배구 친선 경기와 문화 교류를 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교류가 깊어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야마나시현의 매력

풍부한 자연을 비롯한 관광 자원이나 과일 등 야마나시현에는 매력적인 것이 많은데, 이번에는 그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후지산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 사이에 위치한 후지산은 매년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후지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후지산 - 신앙의 대상과 예술의 원천’이라는 명칭 아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일본 최고의 높이(표고 3,776m)를 자랑하는 후지산은 화산과 용암 유출을 반복하면서 거칠지만 신이 깃든 신성한 산으로서 예로부터 경외의 대상이었다. 또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예술 면에서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큰 영감을 주면서 ‘예술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세계유산 ‘후지산’은, 후지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사, 용암 수형, 호수 등을 포함해서 2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후지고코(富士五湖)라 불리는 후지산 주



변에 있는 5개 호수다. 이 호수 면에 빛나는 후지산은 ‘사카사후지(逆さ富士)’라 불리며 일본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시에, 많은 예술작품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후지산에는 등산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신앙이나 문화,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많다.

신겐코 축제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사계절 표정을 지닌 야마나시





현에서는 1년 내내 많은 축제가 개최된다. 이번에는 그 가운데 특색 있는 신겐코 축제(信玄公祭り)를 소개한다. 야마나시현은 전국시대(戰国時代) 무장으로 유명한 다케다 신겐(武田信玄)의 출신지다. 그의 기일인 4월 12일을 중심으로 현 내 각지에서 다케다 가문을 기리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특히, 기일 직전 주말에 현청 소재지인 고후시(甲府市) 중심부에서 열리는 신겐코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있는 축제다. 토요일 저녁부터 현 내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사무라이가 고후시 마이즈루성 공원(舞鶴城公園)에 집결하여, 다케다 신겐의 '고슈군단(甲州軍団)'이 출진하는 모습을 재연한다. 또 2012년에는 '사무라이 최대 집합 기록'으로 세계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었다. 2020년에는 4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전국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것 같은 박력을 즐길 수 있다. 신겐코 축제에 꼭 참여해 보자.



포도와 와인

야마나시현은 예로부터 포도 산지로서 포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일본 최고를 자랑한다. 매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즐길 수 있는 포도 따기 체험은 가족에게 인기 있는 액티비티 가운데 하나다. 포도 따기 체험은 각 농원에 따라 시스템이 다른데, 단지 포도를 수확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제한으로 먹거나 와인을 선물하는 곳도 있다. 또 야마나시현은 일본산 포도를 원료로 일본에서 제조된 '일본 와인'의 발상지로서 일본 와인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야마나시현의 특산인 고슈종(甲州種)을 시작으로 수많은 와인이 해외의 권위 있는 저명한 콩쿠르에서 상을 받는 등 일본 국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 내에는 약 80개의 와이너리가 집적해 있으며, 각각의 맛과 멋이 다른 와인을 마셔보고 비교할 수 있는 와이너리 투어도 인기다. 스태프로부터 와인의 역사와 양조 방법, 시음 방법 등을 들을 수 있는 곳 외에 양조장 견학, 와인 담기 체험, 포도 밭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과 특별한 축제, 맛있는 음식, 와인이 있는 야마나시를 방문해서 그 매력을 즐기길 바란다.

[문의처]

야마나시현 관광부 국제관광교류과

e-mail : kokusai@pref.yamanashi.lg.jp

TEL : +81-55-223-1435

<http://www.yamanashi-kankou.jp/korean/index.html>

(집필 : 야마나시현, 협력 : CLAIR, Seoul)



올해로 한국 데뷔 10주년 한국 전통악기 연주자와 협업도 꿈꿔

한국에 많은 팬을 보유한 일본의 재즈 trio ‘가즈미 다테이시 trio(Kazumi Tateishi Trio)’가 2년간의 내한공연 베스트 트랙을 수록한 ‘라이브 인 서울’ 앨범을 발매하고 지난 12월 공연차 한국을 방문했다. 본지에서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은 다테이시 가즈미(立石一海, 피아노 & 편곡) 씨, 사토 시노부(佐藤忍, 베이스) 씨, 스즈키 마오(鈴木麻緒, 드럼) 씨께 팀 결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국 공연과 팬들과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팀 결성의 계기는?

2010년에 결성해 이제 곧 꼭 찬 10년이 됩니다. 결성 계기는, 2010년 무렵 한 레코드회사에 재즈가 어렵고 어두운 음악이 아니라 ‘즐겁고, 자유롭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며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나 아는 곡을 재즈 형태로 편곡하고, 밴드를 결성해서 작품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예로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영화 음악 등이 언급되었고 그 중 하나가 지브리였습니다. 지브리는 작품 자체도 매력적이고, 지브리 곡을 커버한 음악은 당시에 이미 많이 있었지만, 재즈의 순수한 어쿠스틱 트리오라는 형태는 당시는 별로 없었습니다. 앨범 1장만 내자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結成のきっかけは。

2010年に結成して、もうすぐ丸10年になります。結成したきっかけは、あるレコード会社から「難しい、暗い」というイメージのあるJAZZを「楽しくて、自由で気軽に楽しめる」ものであることを伝えるために一緒にできることはないか、という相談を2010年に受けたことです。そこで、皆さんが知っている曲をJAZZという形でアレンジして、バンドを結成し、何か作品を作るのはどうかというアイデアが出ました。例えば、日本のアニメや映画音楽などが出てきましたが、その中のひとつがジブリでした。ジブリは作品自体が魅力的ですし、ジブリのカバーは当時からたくさんありましたが、JAZZの純粋なアコースティックのトリオという形は、当時は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アルバムを1枚出そうということから始まりました。

세 사람의 만남은?

사실 그런 제안을 받은 2009년 말까지는 음악 업계에서 회사원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마추어로 연주 활동을 하면서 도쿄의 작은 재즈클럽에서 함께 공연하던 스즈키 씨를 영입했고, 베이스를 담당할 인물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점찍은 인물이 사토 씨였습니다. 사토 씨와 면식이 있던 스즈키 씨와 달리, 저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 기치조지(吉祥寺)의 재즈클럽까지 사토 씨에게 인사하러 찾아가서 3인조 밴드가 결성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데뷔하게 된 계기는?

결성 후 곧바로 앨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앨범이 무사히 완성됐고 앨범 발매 기념 라이브로서 도쿄도 내의 작은 재즈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브리 연주'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테지만, 어른스러운 분위기의 재즈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유모차를 탄 아기와 초등학생까지 연주를 들으러 와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대의 라디오 출연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지난 2011년 봄 무렵, 지누락엔터테인먼트의 남진우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차트 상위에 진입했던 모양입니다. 함께 일해 보지 않겠느냐는 남 대표의 권유를 계기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공연과 지방 공연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어디를 가나 따뜻하고 뜨겁다고 할 만큼 자기 생각을 겉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부터 설렌다고 할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절절히 느낍니다. 지역성이라기보다는 관객층, 예를 들면 경기도의 주택가에 있는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면 가족 관객이 많아서인지 분위기가 온화하다던가 하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또, 관객 중에 커플이 많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마치 하트 모양처럼 느껴집니다(웃음). 옆 사람과 소곤소곤 대화도 하고, '휘~익' 휘파람도 불고, 남성 관객은 '와~아~' 하고 커다란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는데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 반갑습니다. 지방을 방문하면 이런 표현이 더욱 강해



3人の出会いは。

実は、その相談をいただく2009年暮れまでは、音楽業界で会社員として働いていました。当時は、アマチュアで演奏しており、東京の小さなJAZZクラブで共演していた鈴木さんを誘い、ベース担当として2人から共通で挙がった人物が佐藤さんでした。佐藤さんと面識のあった鈴木さんと違い、私は直接会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東京・吉祥寺のジャズクラブまで佐藤さんに挨拶に行き、トリオが結成されました。

韓国デビューのきっかけは。

結成してすぐにアルバム作成が始まりました。ファーストアルバムが無事に完成し、アルバム発売記念ライブツアーとして、東京都内の小さなJAZZクラブで活動を始めました。「ジブリの演奏」というのが大きか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大人の雰囲気が漂うJAZZクラブにもかかわらず、ベビーカーのお子さんや小学生も聴きにきて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ラジオ出演などを経て、活動を始めて1年経ったちょうど2011年の春頃にJINU ROCK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南・ジヌ代表から、連絡をいただきました。私たちは知らなかったのですが、韓国でもすでに配信などで上位にランクインしていたようで、南代表から一緒にやらないかとお誘いをいただきました。それがきっかけとなって、韓国にて公演を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집니다. 공연을 시작할 때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데, 관객 여러분이 기뻐해 주십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때는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양이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웃음). (의미를 알고부터는) '네'라고 대답해 주신 것이 기쁠 따름입니다.

한국 데뷔 9년 차인데요.

어느덧 9년이나 지났다,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공연이 기억에 남고, 좌우지간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는 마음으로 맞아 주시는 관객이 많아, 한 공연 한 공연 모두 온 힘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방한 첫해의 공연은 지금도 역시 생각이 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게다가 처음 방문하는 나라의 환경에서, 오직 '음악'으로 마음이 통하게 된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연에서 선곡은?

한국의 인기 순위 차트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르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습니다. 일본이라면 이웃집 토토로, 버락 위의 포뇨가 인기 있지만, 한국에서는 붉은 돼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인기가 높아 '하울'이라고만 해도 관객 여러분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공연 후 사인회에서 교류는?

9년이나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몇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중에는 첫 공연 때는 커플로 오셔서, 그 다음 공연에서는 "결혼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더니, 몇 년 후의 공연에서는 "아기가 생겼어요", "가족이 늘었습니다"



ソウルと地方の公演に違いは.

あります。ただ、韓国はどこに行っても「温かい」「熱い」というくらい、自分の想いを表に出してくださいます。ステージに出ていく瞬間からわくわくというか、本当に皆さんが(私たちのことを)待っていてくれたことを、ひしひしと感じます。地域性というよりは、客層、例えば京畿道のような住宅街の中のコンサート会場で公演をするとファミリー層が多いので雰囲気が穏やか、という違いはあります。また、観客の中にカップルが多いとき、全体的な雰囲気が♡マークになっています(笑)。ひそひそと隣の人とお話したり、「ヒューヒュー」という歓声だったり、男の人の「ウォーウォー」という大きな歓声など、ストレートな表現が嬉しいですね。地方に行くとそのほうがより大きくなります。公演の冒頭で、韓国語で挨拶をしますが、皆さんが喜んでくださいます。まだ韓国語が全然分からなかった時には、皆さんが「ネー」(注:「はい」という応答の意味)と言ってくださったとき、てっきり羊が泣いているのかと思いました(笑)。(意味を分かかって)「はい」と返事をしてくださるのは本当に嬉しいことです。

韓国デビュー9年目.

気づいたら9年経っていた、そんな感じです。全ての公演が思い出深く、とにかく「待ってました!」という気持ちで迎えてくださるお客さんが多いので、1公演1公演、全部出し切ろうという思いです。初めて韓国に来た年の公演はやはり今でも思い出すほど印象的でした。言葉も通じない、しかも初めて訪れる国という環境で、ただただ「音楽」を通じて心を通わせられたことは今でも忘れられません。

公演での選曲は.

韓国での人気配信チャート等を参考にしています。日本と違う点や面白いと思う点が多いです。日本だとトロ、ポニョが人気です。韓国では、紅の豚、ハウルの動く城が人気で、「ハウル」と言っただけで観客の皆さんが「ワー!」と歓声を上げてくれます。

公演後のサイン会での交流は.

9年も活動をしているとリピーターの方がいらっしや、中には、最初の公演時にはカップルで、その次の公演では、「結婚しました」という報告、その何年か後の公演では「子供ができ



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가족의 추억 속에, 가족 앨범의 한쪽에 우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니 기쁩니다. 그 가족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포부는?

매년 기다려 주시는 분, 그리고 처음 찾아 주신 분도 많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다 돌아보지 못한 곳이 많으니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트리오 결성 1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국 데뷔 10주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음악가와의 협업도 꿈꾸고 있습니다.

(사토) 한국의 전통악기 연주자와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한국말은 못해도 음악으로 널리 이어져 나갔으면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9년 동안, 한국에서 수없이 많은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께는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음악의 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매 공연, 한 음 한 음을 소중하게 트리오로서 계속 연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콘서트 일정

10월 31일(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극장 2)
12월 24일(목) 안양 평촌아트홀
12월 26일(토)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ました」「家族が増えました」という嬉しい報告をしてくださいます。ある家族の思い出の中に、家族アルバムの1ページに私たちが入っていると思うと、嬉しいですね。その家族といつまでも音楽を分かち合えたら幸せです。

今後の活動計画, 抱負は.

毎年待っててくれる方,そして,初めましての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まだまだ韓国で回り切れてない場所があるとのことなので,たくさんの街を訪れたいです。来年はトリオ結成 10周年ですが,韓国デビューも同じく10年目。スペシャルに,色々なことにチャレンジしたいですね。個人的には韓国のミュージシャンとのコラボも夢としては持っています。

(佐藤さん)韓国の伝統楽器の音楽家とのコラボも実現すれば嬉しいです。まだまだやってみたいことがたくさん。言葉は話せませんが,音楽のつながりが広が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

最後に一言.

9年間,数えきれない方々との出会いが韓国でありました。本当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입니다。これからも自分も皆さんにも,とにかく色々なことが起きると思いますが,できるだけ長く活動을續けて,音楽の輪を広げていきたいです。現状に決して満足することなく,1公演1公演,1音1音大切に,トリオで奏で續けていき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020년 콘서트日程

10월 31일(土) 光州国立아시아文化殿堂芸術劇場(劇場2)
12월 24일(木) 安養(안양)平村아트홀
12월 26일(土) 世宗文化会馆Mシアター



도쿄 도청사(東京都庁舎, 도쿄, 1991)

일본 건축계의 아버지, 일본 건축의 기초를 확립한 단계 겐조 丹下健三



1981 : 단계 겐조 ©Dijk, Hans van / Anefo

단계 겐조는 일본의 건축가 중 가장 먼저 프리츠커상을 받았으며, 일본 건축의 기초를 확립하고 일본은 물론 수많은 건축가에게 영감을 준 건축가 중 한 명이다. 1913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단계 겐조는 그의 어린 시절을 상하이(上海) 등의 중국 도시에서 보냈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와 시코쿠(四国)의 이마바리(今治)에서 지내다 고등학교 입학 을 위해 히로시마(広島)로 이사 오게 된다. 이때 잡지에 소개된 스위스 모더니즘 건축가인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소비에트 궁전)을 보게 되고 건축가를 목표로 공부하여 1935년 도쿄대학교 건축과에 입학, 건축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도쿄대 졸업 후, 1939년부터



도쿄 시청사에서 본 전망과 신주쿠 파크 타워 (新宿パークタワー, 도쿄, 1994)



요요기 제1 체육관 (代代木第一体育館, 도쿄, 1964) ©Kakidai



도쿄 주교좌 성 마리아 대성당 (東京カテドラル聖マリア大聖堂, 도쿄, 1964) ©Kakidai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 (赤坂プリンスホテル新館, 도쿄, 1982) ©Wiii

1942년까지 르코르뷔지에의 제자인 마에카와 구니오(前川國男邸) 사무실에서 건축 실무를 시작했으며, 이때의 경험은 단게 겐조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다시 도쿄대학교로 돌아가 도쿄대학원에 입학, 1946년 조교수가 되었고 단게 건축연구소를 설립했으며, 1963년에는 도시공학과와 정교수로 임용된다. 도쿄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는데 대표적인 제자로는 구로



요코하마 미술관 (横浜美術館, 요코하마, 1989) ©Wiii

카와 키쇼(黒川紀章),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마키 후미히코(横文彦) 등이 있으며, 마키 후미히코와 이소자키 아라타와는 단계 겐조에 이어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단계 겐조는 전통적인 일본 스타일에 모더니즘 건축을 결합했고, 단순한 기능주의를 탈피한 역동적인 구조의 구조주의 건축 운동의 주역이었다. 도쿄대학교에서는 도시 계획을 연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행된 일본의 도시 재건에 앞장섰다. 히로시마 재건을 위한 히로시마 평화 기념관을 설계했으며, 증가하는 도시 인구 밀도를 해결하기 위한 도쿄 도시계획을 설립했다. 도쿄 도청사, 신주쿠 파크 타워 등 신주쿠 서쪽의 대형 빌딩 등을 설계, 도쿄의 모습을 바꾼 것도 단계 겐조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요요기 제1 체육관(代々木第一体育館, 도쿄, 1964), 도쿄 주교좌 성 마리아 대성당(東京カテドラル聖マリア大聖堂, 도쿄, 1964), 아카사가 프린스 호텔(赤坂プリンスホテル新館, 도쿄, 1982), 요코하마 미술관(横浜美術館, 요코하마, 1989), 도쿄 도청사(東京都庁舎, 도쿄, 1991), 신주쿠 파크 타워(新宿パークタワー, 도쿄, 1994), 후지 TV 본사(フジテレビ本社ビル, 도쿄, 1996), 도쿄 돔 호텔(東京ドームホテル, 도쿄, 2000) 등이 있으며 1941년부터 2005년까지 전 세계에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건축물을 설계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수많은 건축상을 받았으며 1987년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았다. 2005년 타계했으며 그의 건축 사상과 작품은 수많은 제자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후지 TV 본사 (フジテレビ本社ビル, 도쿄, 1996) ©Kakidai



도쿄 돔 호텔 (東京ドームホテル, 도쿄, 2000) ©Kure



프리츠커 건축상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 건축상은 매년 하얏트 재단이 '건축예술을 통해 재능과 비전, 책임의 뛰어난 결합을 보여주어 사람과 건축 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생존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1979년 제이 프리츠커(Jay A. Pritzker)가 만들고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건축상 중 하나다. 이 상은 국적,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주어지며, 건축적 작업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양질의 혁신성과 건축적 사고의 훌륭함이 이 상의 기준이 된다. 건설 기술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 요건이다.



오타루 덴구야마 로프웨이



영화 러브레터의 추억 오타루 小樽



하얀 설원의 언덕에서 “오겡끼데스까(お元気ですか, 잘 지내시나요?)”를 외치는 한 여성, 겨울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몽클한 감성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지로서 하얀 눈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운하 마을 오타루(小樽)를 찾았다.

오타루는 1872년 홋카이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하고 1880년 삿포로(札幌)와 철도를 개통하면서, 홋카이도 교통의 중심이자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경제, 문





오타루 운하



오타루 운하



오타루 역 앞 거리



덴구야마 스키장에서 바라본 경치

화가 발달한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와 그 이전의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으며 항구의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다. 청어, 갯가재, 단새우, 모란 새우, 성게 등이 많이 잡히는 곳으로 해산물 요리가 발달해 있으며, 만화 미스터 초밥왕의 배경지로도 유명하다. 초콜릿과 유제품, 디저트가 발달하여 르타오, 롯데이도 등 핫카이를 대표하는 과자 브랜드의 본점이 있는 곳이며, 핫카이의 중심 도시인 삿포로와도 인접해 있어(열차로 1시간 정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오타루에서 러브레터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25년 전 촬영한 영화라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사방이 눈으로 덮여 있어 비슷한 풍경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

리며 똑 닮은 풍경을 찾는 것은 두근거리는 시간이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러브레터의 감성으로 오타루 곳곳을 걷는다. 10여 곳의 영화 배경지를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영화의 첫 장면을 담은 덴구야마(天狗山), 스키장이자 전망대로 로프웨이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으로 멋진 오타루 시내의 전망과 함께 러브레터 배경지를 찾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종종 여기서 러브레터를 생각하며 “오갱끼데스까”를 외치는 관광객이 있는데, 이 장면은 오타루가 아닌 일본 본토 나가노(長野)의 야쓰가타케 목장(八ヶ岳牧場)에서 촬영했다.

덴구야마에서 내려와 러브레터의 감성을 내려놓고 다시 오타루의 거리를 걷는다. 눈으로 덮인 오래된 건물과 가로등을 밝힌 오타루 운하는 은은하고 몽환적인 풍경을 만





오타루 거리



오타루 거리



기타이치 가라스 3호관



사카이마치 거리



미스터 초밥왕 초밥 가게, 마사시

들어내고 있었다. 거리를 걷다 가볍게 들어간 상점에는 반짝이는 유리 공예품과 차분한 오르골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영화를 떠올리며 먹먹해진 마음은 오타루의 달콤한 디저트가 채워주었고 맛있는 초밥과 신선한 해산물이 든 든하게 해주었다.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는 이와이 준지(岩井俊二) 감독의 작품으로 이루지 못한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홋카이도 오타루의 설원을 배경으로 일본에서 1995년 개봉했다. 한국에서는 1998년 일본문화가 처음 개방된 이후 2번째로 상영했던 영화로서 1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기록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영화 중 하나로 2013년, 2016년, 2017년, 2019년 재개봉할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동원 관객





롯데이



메르헨 교차로



오타루 오르콘당



오타루 거리의 눈사람

이 2만 명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요코하마 영화제 작품상, 일본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오타루 르타오(LeTAO) 치즈 케이크

이와이 순지

岩井俊二, 1963~

일본의 영화감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러브레터(Love letter)의 감독으로 유명하다. 자연광을 사용한 뛰어난 영상미와 풍부한 감성을 잘 표현하는 감독으로 음악, 소설가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일본 드라마 쏘아 올린 불꽃, 밑에서 불까? 옆에서 불까?(打ち上げ花火, 下から見るか? 横から見るか?, 1993)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작품으로는 러브레터(Love letter, 1995), 스왈로우테일 버터플라이(スワロウテイル, 1996), 4월 이야기(四月物語, 1998), 릴리 슈슈의 모든 것(リリイ・シュシュのすべて, 2001), 하나와 엘리스(花とアリス, 2004) 등이 있다. 2020년에는 라스트 레터(ラストレター), 중국판 러브레터(Love Letter) 개봉을 앞두고 있다.





롯데기 미드타운 일루미네이션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 일본의 연말연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며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거리는 특별한 장식으로 예쁘게 꾸며지며 연말연시 휴가가 길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시부야 센터 거리 장식



롯데기 미드타운



롯데기 미드타운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일루미네이션 장식으로 겨울밤을 밝힌다. 빠르면 11월 초부터 시작되어 크리스마스와 연말까지 이어지며, 일부 관광지는 1~2월까지 계속되면서 겨울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다. 보통 10~20만 개가 넘는 LED 전구로 거리를 화려하게 꾸미며 최근에는 3D 맵핑 등 다양한 조명 쇼와 이벤트를 여는 곳

도 많아졌다. 도쿄 도심의 일루미네이션 축제, 후쿠오카의 일루미네이션 쇼, 홋카이도의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등이 유명하다.

하쓰모우데

새해가 밝으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인근 신사를 방문한다. 이는 지난해의 감사를 전하고 신년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



신주쿠 일루미네이션



메이지진구 하쓰모우데



하쓰모우데 풍경



유후인 온천

한 행사로 하쓰모우데(初詣)라고 한다. 신년의 운세를 점치는 제비(오미쿠지, おみくじ)를 뽑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부적(오마모리, お守り)을 사며 에마(絵馬)에 소원을 적는다. 신사를 방문하면 입구의 도리이(鳥居)에서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간다. 다음으로 데미즈야(手水舎)에 들러 손을 씻고 입을 행군다. 향을 피우는 곳에서는 연기를 몸

에 싹워 건강을 기원하기도 한다. 신전 앞에는 새전함이 놓여 있는데 각자의 소원을 기원하며 새전을 던져 넣고 2번 고개를 숙여 인사 후, 2번 손뼉을 치고 마지막 한 번 인사하며 참배를 마무리한다. 메이지진구(明治神宮) 등 유명 신사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며 특히 연애 운이 좋은 신사가 인기가 높다.



가사이 린카이 공원 해돋이

해돋이와 온천여행

새해 첫날에는 새해 첫해를 보기 위해 해돋이 명소를 찾는 사람이 많다. 가까운 도시 인근의 해변이나 고층 빌딩, 산을 찾아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 연말 연시는 휴가가 길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 해외에서 해돋이를 보는 사람도 많으며, 온천을 찾는 사람도 많다.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특별 세일과 후쿠부쿠로

연말연시는 일본 곳곳에서 다양한 세일을 한다. 크리스마스 세일을 시작으로 연말 세일, 재고 정리를 위한 연초 세일, 타임 세일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가게는 12월 31일까지 영업한 후, 새해의 1월 1일 하루를 쉬고 1월 2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15일까지 세일을 계속한다(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져 1월 1일부터 영업하는 곳도 많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가게가 세일을 하며 그 폭도 커서 50~90%로 쇼핑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세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후쿠부쿠로(福袋, 복주머니) 이벤트다. 1월 1일부터 빨간 봉투에 포장된 상품을 상점의 입구에 진열해 두는데 봉투 안에는 판매 가격의 몇 배나 되는 상품이 담겨 있다. 인기 상점의 후쿠부쿠로는 새해 아침부터 긴 행렬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 보통은 내용물을 알 수 없지만, 최근에는 내용물이 보이는 후쿠부쿠로도 등장했다. 뽑기 느낌이 들어 대부분의 가게가 이벤트로 판매하고 있다.





아키타 가쿠노다테

일본 동북 지역의 하얀 풍경 속을 걷다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일본 동북 지역, 일본 본토 동북부의 아오모리현(靑森県),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아키타현(秋田県), 야마가타현(山形県), 후쿠시마현(福島県)의 6현이 속한다. 남북 방향으로 긴 산맥이 뻗어 있으며 화산과 온천, 경치가 아름다운 호수와 계곡이 많고, 보기 드문 천연림과 귀한 고산 식물, 동물이 남아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눈 내린 동북 지



아키타 쓰루노유 온천



아키타 가쿠노다테



아마기타의 풍경



긴잔 온천



뉴토 온천향 행 버스



쓰루노유 온천

역의 멋진 풍경을 만나기 위해 북서부의 3현 아오모리, 야마가타, 아키타의 겨울을 찾았다.

이와테현 긴잔 온천

긴잔 온천(銀山温泉)은 50~60대에게는 NHK 드라마 오싱(おしん), 30~40대에게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배경지로 기억하고 있는 곳이다. 긴잔(銀山)이란 이름



다자와코 호수



아키타 쓰루노유 온천



쓰루노유 온천

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광부들이 피로를 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 광산 인근의 온천마을로 오래된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눈 덮인 온천마을의 고풍스러운 건물이 가득한 거리는 다이쇼(大正, 1912~1926) 시대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훔날리는 눈을 맞으며 우윳빛 온천 수의 긴잔 온천 니고리유(にごり湯) 노천탕에서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아키타현 뉴토 온천향 쓰루노유 온천

일본의 온천욕 하면 드라마 아이리스의 눈 속 온천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은 아키타현 뉴토 온천향(乳頭温泉郷)의 쓰루노유 온천(鶴の湯温泉). 흰색, 파란색, 갈색 등 다양한 색을 지닌 10개 원천에서 온천이 솟아나고 있는 뉴토 온천향, 뉴토산(乳頭山) 기슭에 각기 다른 여덟 곳의 온천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곳이 쓰루노유 온천이다. 이 온천은 약 350년 전 상처 입은 학이 온천탕에 들어가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사냥꾼이 발견해 붙인 이름으로 아키타의 영주도 치유를 위해 찾았다고 한다. 남녀 혼욕 온천으로도 유명하며 온천수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 저편으로 눈 덮인 산의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인근에는 무사들의 저택이 잘 보존된 가쿠노다테(角館),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다자와코(田沢湖)가 있어 아름다운 설경을 감상하며 눈길을 걸을 수 있다.

아오모리현 오이라세계류(奥入瀬溪流)

다양한 종류의 폭포와 기암, 뛰어난 경치를 품은 채로 도와다호(十和田湖)부터 약 14km에 걸쳐 여울, 심연, 급류, 완류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흐르는 아름다운 계곡 오이라세계류. 겨울 계곡은 하얀 눈으로 덮이고 폭포와 강 일부



오이라세계류 라이트 업



얼어붙은 폭포



호시노 리조트 오이라세계류 호텔 온천

가 얼어붙어 마치 겨울 왕국으로 가는 길을 걷는 느낌이 든다. 저녁이 되면 계곡 곳곳에서 라이트 업을 하여 낮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낸다. 계곡 하류에 있는 호시노 리조트 오이라세계류 호텔에는 일본의 예술가인 오카모토 다로(岡本太郎)가 제작한 난로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몸을 녹일 수 있는 라운지가 있다. 창밖으로 눈 덮

인 오이라세계류의 숲속 풍경이 가득하며, 호텔에는 노천 온천으로 따뜻한 오이라세계류 온천이 기다리고 있다.

참고 사이트

TOHOKU JAPAN

<https://jnto.tohokumoment.com/kr/>



오이라세계류 계곡



오카모토 다로의 난로 (호시노 리조트 오이라세계류 호텔)



오키나와 해안도로 드라이브

오키나와 드라이브, 오키나와 미치노에키 온나노에키 女の駅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沖縄)는 아열대 기후에 속해 일 년 내내 22℃ 정도의 평균기온을 유지하며,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은 관광지다. 가늘고 긴 섬이기 때문에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가 많으며,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다. 특히 오키나와는 일본에서 렌터카 요금이 가장 저렴하고 기름값도 일본 본토보다 10% 정도 더 저렴해서 부담 없이 차를 빌려 다니기에도 좋다. 해안도로 곳곳에는 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해변의 해수욕장이 보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 미치노에키(휴게소)도 쉽게 찾을 수 있어 드라이브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오키나와 해변을 달리며 재미있는 미치노에키를 둘러보자.



미치노에키 온나노에키 나카유키이치바

온나노에키 나카유키이치바(おんなの駅なかゆくい市場)는 오키나와 중부 온나손(恩納村) 여성이 모여 시작한 민간이 운영하는 미치노에키다. 운전자의 휴게소는 물론 다양한 오키나와의 먹거리와 토산품,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어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온나노에키는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서쪽 해안을 지나는 58번 국도에 있으며, 나하시(那覇市)에서 나고시(名護市)로 가는 도중에 있어 중간 휴식의 장소로도 적당하다. 13곳의 크고 작은 상점이 모여 있으며, 군것질거리부터 든든한 한 끼 식사까지 오키나와 기념품과 현지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이 있다.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다.

오키나와 소바(沖縄そば), 데비치노 가라아게(てびちの唐揚げ, 족발을 튀겨 달콤한 양념을 바른 요리), 사타안다기(サターアンドギー, 오키나와 도넛), 포크 다마고 오니기리(ポーク



玉子おにぎり, 스펀을 넣은 오키나와 전통 주먹밥) 등 오키나와의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어묵꼬치 튀김, 다코야키(たこやき) 등의 군것질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따뜻한 오키나와에서 찾게 되는 오키나와의 인기 아이스크림 가게 '블루 셀(BLUE SEAL)'과 망고, 파인애플 등 열





온나노에키 나카유키이치바



열대과일 빙수 가게



사타안다기



포크たまご 오니기리

대 과일이 듬뿍 올려진 트로피컬 후르츠(トロピカルフルーツ) 빙수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가게도 있다. 또 오키나와 특산품인 모즈쿠(もずく, 큰실말)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만둣가게, 정통 프랑스 빵을 구워내는 베이커리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안쪽의 마트에서는 온나손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특산품이 진열되어 있으며, 오키나와 기념품인 야치문(やちむん, 도자기), 류큐가라스(琉球ガラス, 유리 공예품)는 물론 오키나와 전통 술인 아와모리(泡盛)까지 이곳만 둘러봐도 오키나와 관광은 반쯤 마친 기분이 든다. 상점 직원 대부분은 온나손의 여성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반겨주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오키나와의 독특한 물고기



오키나와 농산물



오키나와 열대 과일



블루 썬 아이스크림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

일본에서는 미치노에키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미치노에키 연합회(道の駅連絡会)라는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며 미치노에키에 관한 정보교환, 상호 연계 등을 통해 미치노에키의 질을 향상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일본 각 지역을 9개의 블록(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호쿠리쿠(北陸), 주부(中部),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오키나와(九州・沖縄)로 나누어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세미나,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미치노에키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 일본 전국에서 지역의 매력을 잘 전달하면서 운영, 관리가 잘 되는 6곳의 미치노에키를 선정하여 전국 모델 미치노에키(全国モデル道の駅)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치노에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ichi-no-eki.jp/>

미치노에키란?

미치노에키(道の駅)는 일본의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자가 제휴하여 설치한,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의해 등록된 상업시설, 체험시설, 지역부흥시설 등이 하나가 된 도로시설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 등 길이 나 있는 곳의 휴게시설을 미치노에키라 부른다. 1991년 테스트를 시작해서 1993년 정식 등록되었으며 도로 이용자를 위한 휴게 기능(Refresh), 도로 이용자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정보 발신 기능(Information), 지역 특산품, 관광상품 개발, 판매와 함께 지역활성화기능(Community) 등 3가지 기능을 담당하며 일본 전국에 1,154곳이 등록되어 있다. (2019년 4월 기준)



온나노에키 나카유쿠이치바



온나노에키 나카유쿠이치바



니가타현 조에쓰시

환상적인 밤 벚꽃과 다카다성 산주야구라

조에쓰시(上越市)는 서울과 같은 위도에 위치한 면적이 약 974km², 인구가 약 19만 1,000명인 도시로서 포항시와는 로터리 클럽 교류를 계기로 1996년 ‘국제 경제·문화 교류 공동 선언’에 조인하고, 행정 교류 및 고등학생 홈스테이 교류, 문화 교류 등을 통해 20년 넘게 교류하고 있다. 조에쓰시는 인천 공항에서 니가타 공항(약 2시간 30분)을 거쳐, 이곳에서 자동차(약 1시간 30분)로 갈 수 있는 바다

와 산, 대지의 혜택을 받은 자연이 풍요로운 지역이다. 예로부터 교통 요충지로 번창했던 조에쓰시는 중요 항만인 나오에쓰항(直江津港)이 있어 부산항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열렸으며, 일본해 측의 거점항구로서 발전해 오고 있다. 또 복수의 고속도로망이 정비된 것 외에 호쿠리쿠 신칸센도 개통하고 있어 충실한 교통, 물류 인프라를 자랑한다.



등불의 회랑

사계절 이벤트

• 등불의 회랑

겨울 동안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조에쓰시에서는 시내 6개 지역의 도로변과 눈밭에 촛불을 밝히는 이벤트 ‘등불의 회랑’이 개최된다. 양초 불과 그 부드러운 불빛이 연출하는 하룻밤만의 따뜻한 눈의 세상을 즐길 수 있다.

• 다카다성지 공원 벚꽃 축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다카다성지 공원 벚꽃 축제(高田城址公園観桜会), 다카다성의 성터에 만들어진 다

카다 공원과 그 주변에는 봄이 되면 약 4,000그루의 벚꽃이 핀다. 약 3,000개의 등불이 비추는 벚꽃의 아름다움과 해자의 수면에 비치는 모습은 ‘일본 3대 밤 벚꽃’ 중 하나로 불릴 만큼 아름다워 보는 사람에게 봄의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

• 조에쓰 연꽃 축제

다카다 공원에서는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조에쓰 연꽃 축제(上越蓮まつり)’가 개최되어 분홍색과 흰색 등의 연꽃을 즐길 수 있다. 약 19ha의 해자를 메운 연꽃은 그 규모나 아름다움에서 동양 제일이라 한다.

• 겐신코 축제

8월 하순에는 현재의 조에쓰시에서 태어난 센고쿠 시대(戰國時代)의 명장인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 1530년~1578년)을 기리는 축제가 개최된다. 투구와 갑옷을 입은 참가자의 무사 행렬이나 화투불 속에서 펼쳐지는 전투 재현은 박력과 현장감으로 보는 이들을 매료시킨다.

액티비티

• 겨울 스포츠

조에쓰시는 1911년 1월 12일,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키 지도가 열린 ‘일본 스키의 발상지’다. 이날을 기념해서 ‘스키의 날’로 정하고 일본 전국의 스키장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시내에는 ‘눈사람 고원 쿠퍼트 바레이 스키장’이 있으며, 곤돌라 산정부터 최장 4,000m의 코스가 있어 초보에서 베테랑, 가족까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 간기가 있는 거리(다카다의 거리 걷기)

1614년 다카다성 건설과 함께 성하 마을인 다카다가 세워



해자 한 면에 핀 연꽃

졌다. 폭설 지대인 다카다에는 눈이 내리는 중에도 젖지 않고 오갈 수 있도록 집의 지붕을 내민 간기(雁木, 눈이 많은 고장에서 추위에 긴 차양을 내 달고 그 아래를 통로로 한 구조물)나 마치야(町家)라 불리는 오래된 건물이 이어져 있어, 지금도 성하 마을의 정취를 살리고 있다. 또, 다카다에는 일본 최고급 영화관 ‘다카다세카이칸(高田世界館)’과 백 년 요정 ‘우키요(宇喜世)’ 같은 100년 이상의 역사가



겐신코 축제



눈내리는 겨울의 통로인 간기

있는 건조물도 있으니 거리를 걸다가 둘러보는 것도 좋다.

• 조에쓰 시립 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

2018년 리뉴얼 오픈한 조에쓰 시립 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는 사육 수 세계 제일의 마젤란 펭귄과 사랑스러운 흰 돌고래, 다이내믹한 점프를 선보이는 큰돌고래(병코돌고래) 등 다양한 수중 생물의 매력이 넘치는 수족 박물관이다. 일본해와 수조의 수면이 보이는 테라스에서 일본해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다.

• 자연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안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패러글라이더 체험이나 길이 80km에 달하는 일본 유수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 또 물고기를 잡는 후릿그물 체험과 모내기, 전통음식과 민예품 만들기 등 자연 속에서 다양한 시골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풍부한 음식

• 쌀

일본 유수의 쌀 생산지다. 산으로 둘러싸인 비옥한 대지

와 맑고 풍부한 해빙수, 밤낮 기온 차 등 쌀농사에 적합한 환경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초밥, 향토 요리인 누름 초밥 등 곡창지대에서만 가능한 풍요로운 식문화를 즐길 수 있다.

• 사케

양질의 쌀을 사용한 술 빚기도 활발하며, 조에쓰시의 특산품이다. 시내에는 현재 12곳의 양조장이 있어, 각각 엄선된 술을 빚고 있다.

• 와인

‘일본 와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와카미 겐베에(川上善兵衛)가 창설하여, 올해로 창업 130주년을 맞이하는 이와노하라 와이너리(岩の原葡萄園)가 있다. 이 와이너리 와인은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워킹 런치로 제공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에 둘러싸인 조에쓰시에는 계절마다 볼거리가 많다. 직접 조에쓰시를 방문하여 지역주민과 교류하면서 그 매력을 접하는 것도 좋다.

(집필 : 조에쓰시, 협력 : CLAIR, Seoul)



수족박물관, 우미가타리



규슈 관광열차, 이사부로 · 신페이

강혜성 일본문화원 리포터(47)

일본 규슈의 관광열차 가운데 이사부로 · 신페이(いさぶろう · しんぺい)를 소개한다. 이 열차는 구마모토역에서 요시마쓰역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로서 JR 규슈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D&S(디자 인&스토리) 열차 중 하나다. 요즘은 가와세미 야마세미를 비롯해 기하 40계 열차를 개조하여 만든 관광열차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사실 보통열차지만 약간의 개조를 통해 관광열차나 특급열차로 운행하면서(구마모토~히토요시 구간은 특급열차, 히토요시~요시마쓰 구간은 일반열차 등급으로 운행)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재래선에 활기를 주고 있다. 열차 이름은 히사쓰선 건설에 기여했던 체신대신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와 철도원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사부로 · 신페이의 외관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두 눈을 사로잡는다. 또 측면에서 보면 바닥에서 천장까지 큰 유리창으로 된 공간이 있어, 풍경을 감상하며 이동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열차 내부의 나무로 되어 있고, 의자 등받이를 직각에 가깝게 만들어 칸막이 역할을 겸하고 있다. 딱딱한 좌석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쿠션이 있어 편안하다.

열차가 달릴 때 차창으로 보이는 진한 청록빛의 센다이강 모습에 매료되기도 하고, 일본의 3대 차창 풍경 중 하나인 아타케 고개(矢岳越え)와 에비노고원(えびの高原)도 볼 수 있다. 오코바역에서도 잠시 정차하는데 이곳에 명함을 붙이면 출세한다는 소문에 따라 벽면 가득 명함으로 채워져 있다. 스위치백, 파리 터널이라 불리는 보기 드문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

아타케역에서도 잠시 내려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바로 옆에 있는 히토요시 SL 전시관에서는 과거 히사쓰선에서 운행하던 D51 170호기 증기 기관차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사부로 · 신페이는 하루 2회 히토요시~요시마쓰 구간을 왕복하는 JR 규슈의 관광열차로서 전석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어 미리 역 창구나 JR 규슈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규슈 레일패스 소지자는 좌석 지정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단, 하루에 운행하는 열차가 이사부로 · 신페이 2 왕복과 일반열차 1 왕복뿐으로 배차 간격이 매우 긴 노선이기 때문에 운송 수단과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규슈 관광열차, 하야토노카제

강혜성 일본문화원 리포터(471)

5번째로 소개해드릴 일본 규슈의 관광열차는 하야토노카제(はやとの風)다. 요시마쓰역에서 가고시마추오역까지 운행하는 JR규슈의 관광열차로 D&S(디자인&스토리) 열차 중 하나다. 운행 구간이 구마모토~히토요시~요시마쓰 구간을 운행하는 이사부로·신페이와 맞닿아 있어 연이어 탑승하기 좋다. 심지어는 이사부로·신페이에서 같이 탑승한 객실 승무원도 하야토노카제로 갈아타서 업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사부로·신페이와 마찬가지로 기하 40계 전동차를 개조하여 만든 특급열차로 열차 외관은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어 묵직하기도 하고 칙칙하기도 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열차 내부에 들어가면 밝고, 관광열차답게 눈을 사로잡는 실내 설계를 볼 수 있다.

다른 관광열차와 마찬가지로 열차 모형 키링과 같은 기념품 액세서리와 에키벤 등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기념 승차권을 스탬프로 남길 수 있다.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승무원 모자를 쓰거나 당일 날

짜가 적힌 패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야토노카제에서 차창 밖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은 긴코만과 언제 분화할지 모르는 활화산 사쿠라지마다. 하야토노카제 역시 정차역에 한동안 머문 후 운행을 계속하는데, 이 가운데 오스미요코가와역은 하사쓰선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지어진 지 100년이 넘는 건물이다. 또 가레이카와역 역시 100년이 넘는 오래된 역으로 당시의 건축양식과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요시마쓰역~가고시마추오역 구간을 하루 2회 왕복 운행하는 JR규슈의 관광열차로서 1호 차는 전석 지정석이지만, 2호 차는 자유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1호 차는 밝은 조명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고, 2호 차는 보다 어두운 톤으로 엔틱한 느낌이다. 1호 차를 탑승하고 싶다면 역 창구나 JR 규슈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 탑승할 수 있다. 규슈 레일패스 소지자라면 좌석지정 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제6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양국의 문화교류 촉진 및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콘테스트는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수준 높은 작품이 많이 응모되었다.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총 20점의 수상작은 작품성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기동력과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작품과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작품이 골고루 선정되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는 지난 11월 30일에 개최된 시상식에서 촬영 직후 화재로 소실되어 버린 문화재에 대한 안타까움,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 견뎌야 했던 추위와 기나긴 기다림,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작된 사진가를 향한 꿈 등을 소감으로 전하며 작품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 중 4편의 우수 작품은 <일본의 새소식> 표지로도 소개될 예정이다.



오키나와현상 하늘성 CHAJEYUN



나가사키현상 메가네바시(안경 다리) 앞에서! PARK SANGHWAN



산인상 신의 유희 PARK JIHYE



아오모리현상 수빙의 바다 KIM SANHWAN



야키타현상 Composition MOON HO



Nikon상 큰 녹나무 향기 CHUNG DONGHUN



EPSON상 아라시야마의 만추 JANG YOUNGHOON



ANA상 정상을 향하여 YOON SANGPIL



JAL상 심야식당 BAIK SANGHOON



Canon상 등굣길 PARK HOYEOL



INTERPARK상 천년의 인연 KIM SANGSU



Vector상 길을 멈추다, 벚꽃 KIM SEONWOOK



인페인터글로벌상 강 위의 내륙종관열차 LEE HYUNJUN



CLAIR상 눈 속의 우체부 SONG KWANGCHAN



주한일본대사관상 하늘을 담은 사구 BAE DAEHO



주한일본대사관상 영원한 약속 KO JUNGYOON



특별상 핑크와 옐로우의 협연 IYODA EIICHI



특별상 흰 산 아래 흰 소 KIM YOUNGJIN



주한일본대사관상 세빙 SONG JUYOUNG



특별상 가을의 시선 SHIN JUNSIK



주한일본대사관 HP <http://www.kr.emb-japan.go.jp>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트위터 https://twitter.com/JapanEmb_KoreaK
 한일포토콘테스트 <http://kiphotocon.org/>



〈일본의 새소식〉 설문조사 협력 의뢰

평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발행하는 〈일본의 새소식〉을 구독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의 새소식〉 겨울호는 어떠셨나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본 계간지가 일본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에게 〈새소식〉, 즉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더 많은 여러분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 ‘흥미로웠다’라는 의견부터 ‘다음에는 OO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오래되지 않았나?’라는 기탄없는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협력해주시길 경우에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일본의 새소식〉란의 설문지(<https://forms.gle/axmtjbyxSLX5LVY69>)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宮城オレ

가깝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2019.09.28 OPEN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일본 서쪽에 베틀온천이 있다면 ‘일본 동쪽에는 나루코 온천’이 있어요. 이곳은 무려 9종류의 온천이 있어 오사키시 나루코(大崎市鳴子)는 그야말로 ‘온천 백화점’입니다.”



또 이곳은 고케시 인형이 유명하네, 고케시 인형은 원래 산속 마을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갖고 놀던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나루코의 특산품이 되었지요.

가이드 마이짱



2018년 계센누마 가라쿠와(気仙沼唐桑) 코스, 오쿠마쓰시마(奥松島) 코스에 이어 2019년 9월, 미야기 울레 제 3탄! ‘오사키·나루코 온천(大崎・鳴子温泉) 코스’가 오픈되었다.



울레 코스 개장 때는 리본 커팅이 아닌 리본 풀기를 하는데 이 리본들은 훗날 울레 코스의 울레길 안내 리본이 된다고 한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클린 울레’ 정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움츠렸던 이 땅에 활기를 기원하며 우렁찬 다카쿠라 히코바에(藥) 대북연주에 발맞추어 드디어 출발!



웅장하고 깊은 협곡이 품은 자연과 1200년 전통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오사키·나루코 온천 코스. 미야기현에는 나루코 고케시를 비롯해 5종류의 미야기 전통 고케시가 있는데, 이는 1981년 일본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맨홀까지 고케시라니 과연 고케시의 마을답구나! 고케시 인형이 마을을 보호해 준다고 믿는대지?

‘오쿠(奥)로 가는 작은 길’은 에도시대 하이쿠(俳句) 작가 마쓰오 바쇼(松尾芭蕉)가 걸었던 길로, 그는 전국 각지를 여행하며 많은 명언과 기행문을 남겼다고 한다.



거리-10km
시간-약 4시간
난이도-하

‘인생은 여행이다’
-마쓰오 바쇼-

달랑달랑~



애들아~
헤치지 않으니깐
안심하렴~

명승지 나루코 협곡은 우거진
신록으로 사계절이 마음답지만
숲이 깊어 곰이나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고 한다.

코스의 반쯤 걸었을까, 서서히 출출해 질 때 즈음, 점심 장소에 도착하니 덩치 큰 스모선수들이 창코나베를 나눠주고 있었다.



*창코나베(ちゃん鍋)는 스모 선수들이 스모 도장에서 먹는 전통 요리로 ‘나루코 창코나베’는 동일본 대지진 후 미야기현의 스모 선수들이 피해지역을 찾아가 이 요리를 나누며 위문한 것에서 유래.

코스의 명소 일본 고케시관.



장인이 직접
고케시를
만들고 있네.

고케시를 꾸미는 체험도 할 수 있다.

*겨울철 적설로 인해 11월 하순에서 4월하순까지 코스가 폐쇄된다.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단아한 옛 모습 그대로 정겨운 상점가. 코스의 마무리는 고케시 거리에서.



그런데
히코바에가
뭐예요?

‘히코바에(藥)’란
잘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을
말해요.

-미야기현 서울사무소 다카하시 소장님.

코스를 완주한 후 우리는 나루코 온천역에서 족욕으로 피로를 날리며 하늘을 향해 외쳤다. 움츠리고 있던 이 그루터기에 울레길의 생기로 많은 새싹이 피어나기를!



역시
온천마을~